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세나^{1*}, 김은숙²

¹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²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Sae Na Lee^{1*}, Eun Sook Kim²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ang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이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 236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와 Amos. V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2학년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의 교육과정 만족과 인식만족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내적 직업가치를 가진 학생들은 외적직업가치나 중립적 가치를 가진 학생들보다 교육과정만족, 인식만족, 그리고 전체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i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bjects were 236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They filled out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at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and Amos. V18. Sophomore's curriculum satisfaction and perceive satisfaction were higher than freshman's. Group of high self-efficacy was higher than average and low groups in major satisfaction. Group of internal occupational value was higher than group of external and neutral occupational value in curriculum satisfaction, perception satisfaction, and total major satisfaction. The most effective factor on major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as self-efficacy.

Keywords : Dental hygiene student, Major satisfaction, Occupational value, Self-effica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이다 [1].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으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이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된 전공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 [1]. 전공만족도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취 [2,3] 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Corresponding Author : Sae Na Lee(Jangan Univ.)

Tel: +82-31-299-3229 email: saenalee@jangan.ac.kr

Received May 8, 2015

Accepted August 6, 2015

Revised (1st June 4, 2015, 2nd June 15, 2015, 3rd June 19,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적응 [4] 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이며, 대학생활과 전공 학습이 이후 직장에서 직무수행과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볼 때, 이는 학습자의 진로결정과 직무수행, 직업유지 가능성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5-8] .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계열과 비교하여 치과위생사는 사회적 인식, 진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추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 일반 치과병의원을 비롯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이 졸업후 취업을 가장 선호하다고 알려진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치과위생사들 역시 적지 않은 이직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11] . 이런 결과는 구강보건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의 개발과 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예비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이들이 전문직으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향후 치과위생사로서 직무에 만족하고 이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장기취업을 조력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12, 13] 과 부모나 교사,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의 외부적 요인 [14, 15] 이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 17] . 개인의 심리적 특성중 자기효능감은 성취목표지향 및 자아탄력성과 함께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과 관련이 있다 [18, 19] .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20] , 미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생의 전공만족 뿐 아니라, 그들의 진로결정과 직업적 수행에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21, 22] .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역시 전공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 24] . 특히 치위생과와 같이 특정 직업군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적응과 전공만족도는 해당 직군의 주된 가치관 또는 직업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직업가치 인식은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업 활동의 본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5] . 이렇게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는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의식과 진로결정 그리고 직무수행과 같은 미

래의 행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은 교육을 통해 변화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이들의 직업가치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그리고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이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나아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이라는 직업인으로서 이들의 바람직한 직업가치와 결과기대와 효능감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이들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지역과 충남지역에 소재한 3년제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260명 중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는 236부(90.8%)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G.Power3.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을 계산한 결과, 유의수준 .05,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5로 설정하였을 때, 표본 수는 138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비교에서 요구하는 표본수는 2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수는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의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만 20.06세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

Classification	N	%	
School Year	Freshman	106	44.9
	Sophomore	86	36.4
	Junior	44	18.6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90	38.1
	NO	146	61.9
Location of College	Gyeonggi	130	55.0
	Chungcheongnam	106	45.0
Total	236	100	

2.2 연구도구

2.2.1 인구학적 특성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임상실습경험, 재학 중인 대학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ha [26] 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13문항), 과제난이도(7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Cha [24] 의 연구에서는 자신감 .84, 자기조절효능감 .85, 과제난이도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 .79, 자기조절효능감 .81, 과제난이도 .77이며, 전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87이었다.

2.2.3 직업가치

직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Lee [27] 이 변안·수정한 직업가치척도(Occupational Value Scale)를 Lee [21] 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적가치(11문항)와 외적가치(5문항)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6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Lee [21] 의 연구에서는 내적가치 .73, 외적가치 .5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가치 .68이며, 외적가치 .78이었다.

2.2.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im과 Ha [28] 연구와 Cho [29] 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Song [1]

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만족(7문항), 교과만족(6문항), 관계만족(4문항), 인식만족(5문항)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2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Song [1] 의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88, 교과만족 .79, 관계만족 .76, 인식만족 .79, 전체 전공만족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86, 교과만족 .73, 관계만족 .71, 인식만족 .81, 그리고 전체 전공만족도의 신뢰도는 .92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4년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의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지의 불참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중 일부대학의 3학년 학생들은 현장 임상실습중인 관계로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되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과 Amos. v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F-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점수 분포에 따라 상, 중, 하집단으로 나누어서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직업가치유형은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각각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가치척도의 하위요인은 내적가치와 외적가치 두 가지였으나, 설문결과 내적가치와 외적가치가 변별되지 않는 집단은 중립가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직업가치는 내적가치 선호, 내적가치 선호, 중립가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적합성과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교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위생과 전공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교과만족(p < 0.05)과 인식만족(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학년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학생들보다 교육과정만족과 인식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교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치위생과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들과 전체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자기효능감과 보통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직업가치에 따른 전공만족도 비교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직업가치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평균비교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위생과 전공 학생들의 직업가치 유형에 따라 일반만족(p < 0.05), 교과만족(p < 0.001), 인식만족(p < 0.001), 그리고 전체 전공만족도(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내적직업가치를 가진 집단의 학생들은 외적직업가치와 중립적 직업가치를 가진 집단의 학생들보다 교과만족, 인식만족, 그리고 전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만족도는 직업가치 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3.4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자

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	Major Satisfac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ship		Perception		Total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M±SD	F/t (p)		
School Year	1	106	3.53±.57	2.16	3.44±.44 ^a	3.86	3.34±.53	.84	3.71±.50 ^a	6.41	3.51±.42	3.61
	2	86	3.64±.58	(.117)	3.63±.48 ^b	(.022)	3.45±.60	(.435)	3.91±.58 ^b	(.002)	3.66±.48	(.029)
	3	44	3.42±.59		3.49±.52 ^{ab}	a < b	3.40±.56		3.58±.54 ^a	a < b	3.47±.49	
Clinical Practice	Y	90	3.54±.60	-.17	3.51±.49	-.20	3.42±.58	.67	3.76±.58	.15	3.56±.49	.07
	N	146	3.55±.57	(.416)	3.52±.47	(.784)	3.37±.55	(.534)	3.75±.53	(.376)	3.56±.45	(.398)
Location	G	130	3.52±.55	.95	3.54±.45	-.87	3.43±.54	-1.09	3.71±.52	1.31	3.55±.44	.25
	C	106	3.59±.61	(.142)	3.49±.51	(.095)	3.35±.59	(.193)	3.81±.58	(.304)	3.57±.49	(.068)

Table 3. Comparison of the mean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self-efficacy

Self-efficacy	N	Major Satisfac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ship		Perception		Total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Low	81	3.35±.52 ^a	12.38	3.42±.48 ^a	11.09	3.29±.54 ^a	13.09	3.69±.52 ^a	6.58	3.44±.44 ^a	14.46
Average	74	3.50±.50 ^b	(.000)	3.41±.38 ^a	(.000)	3.23±.46 ^a	(.000)	3.64±.46 ^a	(.002)	3.46±.35 ^a	(.000)
High	81	3.78±.63 ^b	a < b	3.71±.51 ^b	a < b	3.64±.59 ^b	a < b	3.93±.61 ^b	a < b	3.77±.50 ^b	a < b
Total	236	3.55±.58		3.52±.48		3.39±.56		3.76±.55		3.56±.46	

Table 4. Comparison of the mean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occupational value

Occupational Value	N	Major Satisfaction									
		General		Curriculum		Relationship		Perception		Total	
		M±SD	F(p)	M±SD	F(p)	M±SD	F(p)	M±SD	F(p)	M±SD	F(p)
Internal	191	2.59±.55	3.44	3.58±.45 ^b	7.95	3.42±.56	1.48	3.83±.52 ^b	10.09	3.61±.43 ^b	7.02
External	26	3.35±.75	(.034)	3.26±.58 ^a	(.000)	3.26±.58	(.230)	3.52±.59 ^a	(.000)	3.35±.58 ^a	(.001)
Neutral	19	3.35±.56		3.28±.46 ^a	a < b	3.26±.56		3.35±.49 ^a	a < b	3.31±.48 ^a	a < b
Total	236	5.55±.58		3.52±.48		3.39±.56		3.76±.55		.36±.46	

Table 5.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62***	1												
3	.49***	-.24***	1											
4	-.07	.06	-.06	1										
5	.03	.04	-.01	.42***	1									
6	.07	-.03	.14*	.39***	.43***	1								
7	.02	.02	.04	.72***	.80***	.81***	1							
8	-.08	.01	.11	.34***	.09	.15*	.23***	1						
9	.03	-.02	.06	-.08	-.07	-.16*	-.13*	.13*	1					
10	-.04	.01	-.06	.44***	.16*	.30	.37***	.42***	-.02	1				
11	.08	.01	.06	.42***	.15*	.24***	.33***	.45***	-.02	.73***	1			
12	.06	-.04	.07	.44***	.20**	.21**	.35***	.34***	-.02	.51***	.61***	1		
13	-.02	-.01	-.09	.37***	.10	.12	.23***	.41***	-.13*	.72***	.64***	.46***	1	
14	.01	-.00	-.02	.49***	.18**	.27***	.38***	.48***	-.05	.91***	.88***	.72***	.84***	1

*p < 0.05, **p < 0.01, ***p < 0.001

1.school year, 2. clinical practice, 3. location of college 4. self-regulatory efficacy, 5. self-confidence, 6. task difficulty preference, 7. self-efficacy, 8. internal value, 9. external value, 10. general satisfaction, 11. curriculum satisfaction, 12. relationship satisfaction, 13. perception satisfaction, 14. total major satisfaction

신감, 자기조절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들, 내적 직업가치 요인, 그리고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들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적 직업가치 요인과 인식만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3,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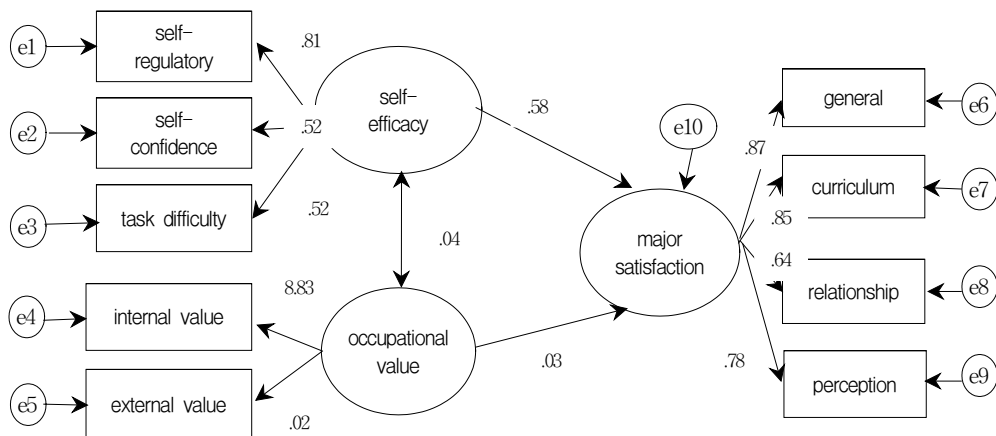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hi^2=78.7, df=24, NFI=.90, TLI=.89, CFI=.93, GFI=.94, RMSEA=.09$

Table 6. Regression & Effects

Regression	Estimate	Stand. Estimate	S.E	C.R	p	Standardized Effects		
						Total	Direct	Indirect
satisfaction ← efficacy	.89	.58	.14	6.52	.00	.58	.58	.00
satisfaction ← value	.01	.03	.01	.83	.41	.03	.03	.00

3.5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Fig. 1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 NFI, TLI, CFI, GFI, RMSEA를 확인하였다. 이들 수치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모형을 채택하였고, 각각의 경로계수와 전공만족에 대한 인과효과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아효능감은 전공만족에 .58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라 전공만족도 하위요인인 교과만족과 인식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학생들보다 2학년 학생들이 교과와 인식만족도는 높았고, 3학년 학생들의 교과와 인식만족은 2학년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학년의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다는 Kim 등 [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고학년일수록 학교만족도가 높다는 Kim [31] 과 Jung 등 [32]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점을 보였다. 학년에 따른 교과만족의 차이는 학년에 따른 전공 교과목 편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 대학에서는 아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지 않았으나, 공통적으로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교양교과목과 전공기초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학년 교육과정은 심화된 전공 교과와 실험실습교과목, 그리고 임상실습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어 1학년 때보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와 근접한 전공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2학년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만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학년 학생

들의 인식만족도가 2학년 학생들보다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치위생과 지원자중 상당수가 동일대학 또는 타대학의 보건계열 타과에 복수지원한 경험이 있다 [9]는 사실과 치과위생사들은 전문직으로서 전통적인 이미지가 약하고 전문직에 대한 보조역할을 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 [33]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시기(1학년 1학기)를 고려하였을 때, 1학년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전문적 이미지를 아직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낮은 진로결정 만족도가 낮은 학교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공학습이 이전보다 심화되고, 임상실습경험이 풍부해진 3학년의 전공만족도가 2학년 보다 낮은 것은 국가고시와 취업을 앞두고 학습수준과 학업분량 등 학업부담 증가와 취업경쟁과 취업전망 등 현실적인 취업정보를 체감하게 되면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사회적 지위개념과 직업에 대한 낮은 이미지를 형성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소재 지역에 따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소재지별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 [34, 35]과 상반된다. 이는 치위생학 전공 특성상 국가고시 대비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인식 등의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교만족도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들의 전공만족도는 단순히 대학의 위치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최근 생존의 위협을 받는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많은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선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모두가 전공적

응 및 만족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Jung [19] 과 Choi 등 [1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체계로서 외부 자극을 상징화하고, 타인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고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자기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3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 하고 이에 더욱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37, 38] .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고, 조직몰입이 높아져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Kim 등 [22] 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은 이후 치과위생사로서 취업 후에도 높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로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직업가치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적직업가치를 가진 집단의 대학생들은 외적직업가치와 중립적 직업가치를 가진 집단의 대학생들보다 교과만족, 인식만족, 그리고 전체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만족도는 직업가치 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취감, 보람, 지적 자극과 같은 내적인 가치를 직업에 대한 가치로 인식하는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은 치과위생사라는 전문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인식에 만족도가 동료관계, 경제적 보상, 직업환경과 같은 외적인 직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가치는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을 갖는 이유와 목적으로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21] . 내적가치 지향은 연령 및 학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39] 내적직업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외적직업가치를 가진 사람들보다 진로의식 수준이 높고 [40] , 진로의식이 성숙할수록 직업에 대한 가치가 외적인 가치에서 내적가치 선호로 변한다 [41]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치과위생사로서 진로의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입시에만 몰두하여 충분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대학에 입학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과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치위생과와

같이 특정 직군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학과에 유입되는 인적자원의 진로가 해당 직업과 직무로 결정되었다는 전제로 교육을 시작한다. 따라서 직무기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의 직업가치와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로서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업기관의 요구에만 맞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진 직업관을 우선 파악하고, 학생 개인과 직군에 걸맞는 직업관 형성을 조력하고 이를 고려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Jung [19] 과 Choi 등 [1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통해 학업 및 학교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기대가 높은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서 학생들의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제공과 성공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년, 자기효능감 수준, 직업가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이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따라서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유능한 치과위생사로서 구강보건위생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년,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진로계획, 직무태도,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은 교과를 통한 학습 뿐 아니라, 대학생활을 전반에서 직간접적인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성숙한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 및 충남지역의 일부 대학 치위생학 전공대학생들을 편의표집한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제 학생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예비치과위생사의 전공만족도와 취업 및 진로의식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3.
- [2] W. H. Kim "Exploratory cross cultural study of Alma mater identification",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5, No. 2, pp.25-45, 2002.
- [3] E. K. Jeon, E. Y. Chang, K. H. Lee, "Satisfaction factors for a clothing and textiles major: A modeling", *Korean J Society of Clothing & Textile*, Vol. 25, No. 9, pp.1614-1620, 2001.
- [4] Y. K. Kim, "A study in the fluence factors of college student's adjustment-focused on comparing poor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in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jeon, 2010.
- [5]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6]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5, pp.1793-1811, 2011.
DOI: <http://dx.doi.org/10.15703/kjc.12.5.201110.1793>
- [7] S. C. Jang, "A typology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nalysis of related personal and cognitive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2003.
- [8] J. 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7.
- [9] S. M. Baek, D. H. Song, J. S. Park, J. Y. Bae, W. S. Jeong, S. J. Hwang, "Comparison of major and job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graduates in dental hygiene and nusing", *J Dent Hyg Sci*, Vol. 13, No. 4, pp.378-385, 2013.
- [10] H. N. Choi, J. W. Lee, Y. S. Cho, "Factor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of public health dental hygienist", *J Kor Soc of Den Hyg*, Vol. 11, No. 3, pp.33-351, 2011.
- [11] M. S. Choi, K. H. Lee, M. S. Choi, "Dental hygienist' turnover intention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6, No. 1, pp. 11-17, 2006.
- [12] J. K. Im, "A study on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major satisfaction and accomplishments of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2011.
- [13] Y. S. Choi,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at major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k National University, 2002.
- [14] M. M. Kim, "The influences of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n department satisfaction levels and care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7.
- [15] H. K. Kim, H. S. Shin, M. W. Suhr, K. W. Hwa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ocio-cultural factors in their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12, No. 2, pp.117-154, 2001.
- [16] J. S. Nam,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psychological trait variables and university life trait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0.
- [18] M. K. Choi, Y. H. Jang, H. K. Yu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Vol. 14, No. 2, pp.155-162, 2014.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2.155>
- [19] K. O. Jung, "The effects of dental-hygiene students' goal achievement orientation in their self-efficacy and majo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J Korean Soc Dent Hyg*, Vol. 12, No. 1, pp.167-177,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1.167>
- [20]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2, pp.191-215, 1977.
DOI: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21] E.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value and maturit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2002.
- [22] H. Y. Kim, J. O. Choi, M. G. Seong,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on

-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 Korean Soc of Dent Hyg*, Vol. 12, No. 1, pp.213-223, 2012.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2.12.1.213>
- [23] H. Y.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2010.
- [24] Y. J. Han, J. H.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Korean J Culinary Res*, Vol. 19, No. 2, pp.76-92, 2013.
- [25] E. Y. Jeong, J. K. Kim, "A study on work value factors and professional attitude factors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parts", *J Korean Soc Dent Hyg*, Vol. 13, No. 3, pp.439-448, 2013.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3.13.3.439>
- [26] J. E. Cha,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7.
- [27]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focused on self-esteem, work value,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1997.
- [28]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7-20, 2000.
- [29] W. S.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Geonggi, 2009.
- [30] M. N. Kim, Y. M. Heo, H. J. Kim, Y. S. Ahn,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of Dent Hyg*, Vol. 15, No. 1, pp.81-89, 2015.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1.81>
- [31] S. G. Kim, "The effect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as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 Ji University, Gangwon, 2003.
- [32] S. H. Jung, E. H. Kim, H. S. Kim,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of Dent Hyg*, Vol. 11, No. 1, pp.69-78, 2011.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7.
- [33] M. J. Kim, H. K. Lee, Y. I. Kim, "A study in the dental hygienists' image perceived by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Vol. 11, No. 6, pp.481-487, 2011.
- [34] S. H. Jung, E. H. Kim, H. S. Kim,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of Dent Hyg*, Vol. 11, No. 1, pp.69-78, 2011.
- [35] J. A. Jung, Y. J. Jang, "A study on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i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Korean Soc of Dent Hyg*, Vol. 11, No. 5, pp.649-657, 2011.
- [36] M. H. Lee "The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 career identity and locus of control that job-seek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 2013.
- [37] S. E. Chang,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in job seeking efficacy for juni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 2006.
- [38] J. Y. Bae,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nd job-seeking efficacy. Graduat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gbukdo, 2008.
- [39] M. R. Lepper, J. H. Corpus, S. S. Iyengar,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in classroom: Age differences and academic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7, No. 2, pp.184-196,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7.2.184>
- [40] E. M. Grade, G. Peterson,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the vocational maturity of vocational-technical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26, pp.125-130, 1977.
DOI: <http://dx.doi.org/10.1002/j.2164-585X.1977.tb00959.x>
- [41] Phyllis Post-Kammer, "Intrinsic and extrinsic work values and career maturity of 9th-and 11th-grade boys and girl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65, pp.420-423, 1987.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87.tb00746.x>

이 세 나(Sae Na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문학석사)
- 200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철학박사)
- 2006년 3월 ~ 2015년 2월 : 영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진로교육

김 은 숙(Eun Sook Kim)

[정회원]



- 1986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2011년 8월 : 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보건학